

망 사용료 한발 물러선 EU... 챗GPT·6G 기술 '관심집중'

MWC 2023

브르통 EU 집행위원

“통신망 새 자금조달모델 찾아야
통신사·빅테크, 이분법적 문제 아냐”

H-NTT도코모, 핀란드-노키아
6G관련 2개 핵심기술 개발 발표
MS, 챗GPT적용 포털 ‘빙’ 첫 선

화웨이 전시관, 삼성의 5배 규모 등
중 기업, 스마트폰 알리기에 적극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 기조연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MWC 2023’의 최대 화두는 망 사용료와 6G 및 챗GPT, 중국 기업의 총공세였다. 최대 화두로 예상된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유럽연합(EU)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면서 한단계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최고급 폰을 선보이면서 크게 활약했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서다.

◆가장 빛난 6G 및 챗GPT 기술

이번 전시회에서 상용화를 5년 앞둔

6G와 챗GPT 기술은 큰 화제가 됐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동통신 기술의 한 세대가 10년이라는 점에서 6G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와 핀란드 노키아는 6G 관련 핵심 기술 두 가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NTT도코모는 MWC서 6G 시대의 인간 증강 플랫폼을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촉각센서를 통해 전해진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6G 시대의 서비

스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촉각 정보까지 공유가 가능하다.

노키아는 6G 센싱존을 전시했는데,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센싱존에서 위치 정보 없이 움직이는 사물의 위치를 전파신호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AI 기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가 최적화되는 모습도 시연했다.

오픈AI에 12조원 투자를 결정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자사 검색 포털



중국 샤오미가 MWC2023에서 샤오미13 시리즈를 공개했다. 샤오미13 프로 후면. /뉴시스

‘빙’에 챗GPT를 적용한 검색형 AI 챗봇을 발표했으며, MWC에서 시연공간을 마련했다. 또 AI 대화 기술과 음성·생체정보 인식 기술을 접목한 ‘뉘앙스’ 솔루션도 출품했다.

퀄컴은 대규모 AI 인프라 없이도 스마트폰에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중국 기업들 홍보 경쟁 뜨거워

중국 기업들이 이번 MWC에서 스마

트폰을 알리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이 장기화되며 이를 대체할 시장으로 유럽을 꼽고 있다.

화웨이는 9000㎡ 규모의 첫번째 홀을 통째로 빌렸다. 이는 삼성전자 전시관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메이트50’ 시리즈와 화웨이 워치 버즈, 워치 GT 사이버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또 자회사인 아너는 폴더블폰 ‘매직Vs’와 플래그십 스마트폰 ‘매직5’를 공개했다. 매직Vs도 ‘갤럭시Z폴드4’와 유사한 디자인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조금 키운 게 특징이다. 오포는 ‘갤럭시Z폴드4’보다 더 큰 커버 스크린을 가진 ‘파인드N2 플립’을 공개했다.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업계 3위인 샤오미는 MWC 개막 전날 연례 행사를 개최하고 ‘샤오미13’ 시리즈를 공개했다. 샤오미 13 프로 가격은 180만원이며, 전작인 샤오미12의 2배에 달한다. 샤오미는 이 제품의 카메라 기능이 세계 최고라고 자신하고 있는 데, 삼성 ‘갤럭시S23 울트라’의 경쟁 모델로 꼽히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여전히 세련... 무결점 ‘프리미엄’의 자존심

(A8L)

(Q4 e트론)

김재웅의 볼볼볼

아우디 ‘A8 L’, ‘Q4 e트론’

A8 L A8 부분 변경에도 ‘세련미’
내부에 ‘버추얼 콕핏 플러스’ 장착

Q4 e트론 토크·출력 충분히 만족
동급 전기차 보다 모든게 ‘평균 이상’



아우디 A8 L(왼쪽)과 Q4 e트론.

‘독3사’라는 말은 아우디를 위한 단어다. 아우디를 자타공인 명차 브랜드였던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실제로 아우디 활약상은 대단했다. 스키점프대를 올라가는 광고 영상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고, 요즘에서야 유행하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도 10년 전에 이미 구현해냈다.

플래그십인 A8L은 아우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델이다. 2014년 출시한 A8을 부분 변경했는데, 요모조모 따져봐도 요즘 새로 나오는 신차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다.

당장 외관만 봐도 그렇다. 기존 A8과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세련됨이 묻어나온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이제서야 유행을 타는 상황, A8은 이미 10년 전 적용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테일 라이트에는 OLED까지 추가했다. 앞뒤로 반짝이는 디자인이 완성됐다.

실내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트랜스에 맞춰 ‘버추얼 콕핏 플러스’를 장착, 커다란 화면뿐 아니라 아우디 커넥트를 통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원격으로 정비 상태 확인 등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가 햅틱 피드백이 적용된 듀얼 터치스크린인데, 터치 인식

이 스마트폰 대비 까다롭긴 해도 누르는 느낌도 있고 속도도 빨랐다. 내장 내비게이션에 불만이 많긴 하지만 많이 개선됐다.

롱 휠 베이스답게 2열 공간은 압도적인 럭셔리를 자랑한다. 헤드레스트에 달린 태블릿은 웹 검색이나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다. 가운데 작은 스크린으로 켜 블라인드도 이상없이 잘 퍼졌다. 접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마사지 기능도 꽤나 본격적인데, 허리와 어깨, 등은 물론 발마사지까지 가능하다. 강도가 세진 않아도 기분 좋게 이동할 정도는 된다. 독서등이나 조명 조절 등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도 준다. 뱅앤올룹슨 사운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주행 성능은 내연기관 끝판왕 급이다. 3리터 가솔린 V6 터보차저 엔진으로, 최대토크가 50.99kg·m에 최고 출력이 340마력에 달한다. 물론 고성능 브랜드 S라인 뱃지도 달린다. 그러면서도 복합 연비는 8.3km/L, 공차중량이 2.1톤인데도 부드럽게 잘 달려준다. 럭셔리 모델이다보니 V6에서 나오는 배기음 같은 건 없지만, 성능은 S 라인업에 비견할만 해서 색다른 기분이다.

Q4 e트론은 올해를 책임질 차다. 아우디에서는 엔트리급이긴 해도 폭스바

겐그룹 MEB 플랫폼으로 처음 만든 전기차, 6000만원 안팎의 가장 치열한 시장에서 볼륨모델을 꿈꾸기도 한다.

무엇보다 아우디가 전기차에도 지난 헤리티지를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한다. 전기차상향평준화 시대, 아우디가 앞으로도 눈 덮인 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일단 긍정적으로 답하고 싶다. 전기차 다 보니 토크나 출력이나 충분히 만족스럽다. 주행거리도 인증상으로는 357km인데, 막상 300km 정도를 달리고 난 후에도 잔여 전력이 30%를 넘었다.

실내 편의 사양도 프리미엄 브랜드 자존심을 지켰다. 작은 크기에 널따란 2열 공간도 신기하지만, 스포츠 스티어링휠부터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전 아우디에서 봤던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운전석쪽으로 들어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우디의 작은 배려도 느껴진다.

주행감도 익숙하다. 의도적으로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우디 설명이다.

/김재웅 기자 juk@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소형 모듈러 주택 ‘스마트 코티지’

복층 원룸, 화장실·파우더룸 갖춰

LG전자가 미래형 스마트홈 콘셉트인 ‘LG스마트 코티지’를 2일 공개했다.

스마트코티지는 세컨드 하우스 형태 소형 모듈러 주택이다. LG전자의 에너지 및 냉난방공조 기술과 프리미엄 가전을 적용한 콘셉트로, 공간과 가전 서비스를 융합해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조물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프리 패브’ 방식이다.

이번에 공개한 시제품은 31.4㎡ 크기로 복층 원룸 구조로 제작했다. 거실과 주방을 한 공간에 배치했으면서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따로 갖췄다. 2층에는 침

실, 지붕에는 4kW급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도 있다.

에너지 소비량도 대폭 줄었다.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씨마브이 모노블록’을 스마트코티지에 설치했다.

LG전자는 ‘윌케이션’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고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코티지를 기획했다. ESG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오브제컬렉션 위시타워 컴팩트와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도 갖췄다.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해 여유로운 삶과 ESG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인텔 ‘13세대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공개

올 글로벌 노트북 350종에 탑재

인텔이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를 앞세워 노트북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선다.

인텔코리아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국내 공식 출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텔코리아는 이날 ‘인텔·이보™ 업데이트’와 ‘신규 제품의 세부 라인업 및 사양’을 공개했다.

인텔코리아는 이보(Evo) 인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노트북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텔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시

장에 약 350종의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HP, 레노버, MSI, 에이수스, 에이서 및 기가바이트 등 국내외 제조사들은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 노트북 신제품을 프로세서 출시에 맞춰 국내시장에 출시 중이다.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HX 프로세서를 필두로 H, P, U 시리즈 제품으로 구성된다. 국내 제조사들은 노트북의 ‘가벼운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트북 PC에 대부분 H, P 시리즈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게이밍과 전문가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노트북에는 HX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다.

/허정원 기자 zelkova@